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딸깍발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일상적으로 신을 신이 없어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는다는 뜻으로, 가난한 선비를 낮잡아 이르는 말.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딸깍발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일상적으로 신을 신이 없어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는다는 뜻으로, 가난한 선비를 낮잡아 이르는 말.

딸깍발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딸깍발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달각발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딸깍발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달각바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달각발이
  19세기
- 딸깍발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달각발이, 달각바리, 딸깍발이

딸깍발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딸깍발이’의 옛말인 ‘달각발이’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달각발이’를 이어 적은 ‘달각바리’도 나타난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현대 국어 어형과 비교하여 볼 때 19세기에는 아직 첫째 음절, 둘째 음절 모두 된소리가 되지 않았다.

말의 구성과 어원

나막신을 끄는 소리를 ‘달각달각’이라 한 ≪국한회어≫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보면 ‘달각발이’는 ‘달각+-발이’와 같은 결합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다.

문헌 속의 딸깍발이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달각발이, 달각바리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달각발이, 달각바리

출처 1880 한불자전 461

용례 01

문헌 용례

달각발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69

용례 02

문헌 용례

달각바리 魚寒屐翁.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딸깍발이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딸깍발이

출처 1926 조선일보 8월 3일 3면

용례 03

문헌 용례

한 분은 순 조선 의복에 진고개 딸깍발이 생선 장수들이 굽 놉흔 나막신 대신에 흔히 신는 고무장화를 신엇고.

현대어 풀이

한 분은 순조선 의복에 진고개(명동에 있던 고개) 딸깍발이 생선 장수들이 굽 높은 나막신 대신에 흔히 신는 고무장화를 신었고.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4

문헌 용례

남산-골:-샌:님[-꼴-] 名 가난한 선비를 가리치는 말. 남산골 딸깍발이.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딸깍발이의 보충 설명

‘딸깍발이’는 나막신을 신고 다닐 때 ‘딸깍딸깍’ 하고 나는 소리를 나타낸 말이다. 특히 ‘남산골 딸깍발이’라 하는데 옛날에 주로 서울 남산골에 살던 선비들이 가난하여 마른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닌 데서 유래한다. 국어학자 이희승의 수필 <딸깍발이>(1956)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딸깍발이’란 것은 ‘남산골샌님’의 별명이다. 왜 그런 별호가 생겼느냐 하면, 남산골샌님은 지나 마르나 나막신을 신고 다녔으며, 마른 날은 나막신 굽이 굳은 땅에 부딪쳐서 딸깍딸깍 소리가 유난하였기 때문이다. 요새 청년들은 아마 그런 광경을 못 구경하였을 것이니, 좀 상상하기에 곤란할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일제 시대 일인들이 ‘게다’를 끌고 콘크리트 길바닥을 걸어 다니던 꼴을 기억하고 있다면 ‘딸깍발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까닭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딸깍발이 관련 낱말

비슷한말: 남산골 딸깍발이
참고 어휘: 딸깍딸깍

딸깍발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민수 편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이희승 1956 벙어리냉가슴 일조각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딸깍발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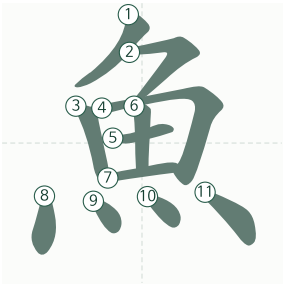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魚

뜻·음 고기·물고기 어

총 11획 · 부수 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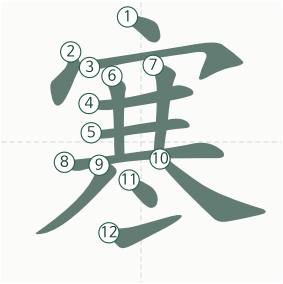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魚/

寒

뜻·음 찰 한

총 12획 · 부수 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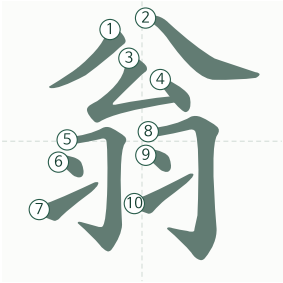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寒/

翁

뜻·음 늙은이 옹

총 10획 · 부수 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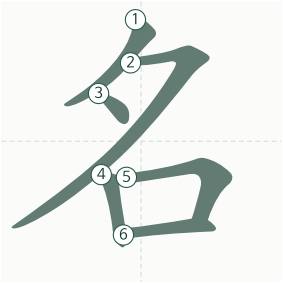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翁/

名

뜻·음 이름 명

총 6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名/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 사전 상세 항목이 없는 본문 한자: 屐.